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in Children's Worship

어린이 예배에서 '이야기식 설교'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김은주(Eun-Ju Kim)

Abstract

Stories have been studied as an important educational method in Christian education. In recent discussions on religious education, stories are positively evaluated in terms of stimulating children's unique fantasy, as opposed to visual media, and in terms of face-to-face direct communication. Our most profound and passionate orientation to the world is shaped by stories. This is because stories move us by moving us and shape our unconscious to act accordingly. However, the subjects that supply stories to children now are various mass media and consumer culture. The story it tells instills a secular worldview and makes us dream of a world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kingdom of God. Our children need a story to imagine the kingdom of God. This paper focuses on story-style sermons in children's worship and tries to deal with the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tory-style sermons. To this en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reat the Bible as a story according to the approximate concept of the story and the position of literary criticism who approached the Bible as a story. The second will deal with narrative preaching. First, we will look at narrative sermons for adults, and then deal with narrative sermons for children. The two narrative sermons were treated separately in the sense of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rather than being separated. Lastly, I would like to draw out the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narrative preaching.

Key Words

Story, Narrative sermon, Children's worship, Sermon, Christian education, Bible, literary criticism

Received November 26, 2022 Revised December 28, 2022 Accepted December 29, 2022

Author : Eun-Ju Kim, Director of Christian Education, Incheon Joongang Evangelical Holiness Church,
kimeu.mac@gmail.com

어린이 예배에서 '이야기식 설교'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in Children's Worship

김은주(Eun-Ju Kim)**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논문은 어린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식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식 설교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야기는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최근의 종교교육 논의에서 이야기는 시각적인 미디어와는 반대로 아이들만의 고유한 판타지를 자극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댄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열정적인 지향은 이야기에 의해 빚어진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해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공급해주는 주체는 다양한 대중 매체와 소비문화이다. 그것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세속적 세계관을 주입하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도록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어린이 예배에서 설교의 한 형태로서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어린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식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식 설교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우선 이야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과 성경을 이야기로 접근한 문학 비평의 입장에 따라 성경을 이야기로 다룰 것이다. 두 번째는 이야기식 설교에 대해 다룰 것이다.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식 설교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식 설교를 다룰 것이다. 두 개의 이야기식 설교는 따로 구분돼 있다기 보다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결론 및 제언 : 본 논문은 현재 어린이 예배에서 행해지고 있는 설교가 보다 더 이야기식 설교에 초점이 맞추어지길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다루었다. 이야기식 설교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참여적 배움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과 자아와 타자에 대한 종교적 언어를 획득함으로써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

이야기, 이야기식 설교, 어린이 예배, 설교, 기독교교육, 성경, 문학비평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해 왔다.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전하는 부모나 교사와 눈을 맞추며 반응하고 상상한다. 그것은 단순한 유희와 재미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창조적 과정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할머니나 부모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경우는 점점 드물어가는 듯하다.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공급해주는 주체는 다양한 대중 매체와 소비문화이다(Smith, 2019). 그것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세속적 세계관을 주입하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도록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야기는 기독교교육과 종교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아이들이 교회교육 현장에서 생생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린이 예배에서 설교의 한 형태로서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어린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식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식 설교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야기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과 성경을 이야기로 접근한 문학 비평의 입장에 따라 성경을 이야기로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이야기식 설교에 대해 다룰 것이다.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식 설교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식 설교를 다룰 것이다. 두 개의 이야기식 설교는 따로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구분하여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II. 이야기

1. 이야기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들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알게 된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향이 이야기에 의해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서사적 동물이다(Smith, 2018, 191). 인간은 주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와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동물인 '호모 나란스(Homo narrans)'로 표현되기도 한다. 문제와 갈등, 시행착오, 결과라는 패턴을 갖추고 있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에 관하여 말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양금희, 20

10a, 33; Wright, 2010, 78-81).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MacIntyre, 1997)는 이야기가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너무나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모를 것이라고 말한다. 즉, “나는 어떤 이야기에 속해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방진하, 2014, 82; Smith, 2018, 191).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이야기는 사건, 등장인물, 배경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플롯(줄거리)을 통해 개별 사건들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조직하는 의미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전체의 삶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경험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 준다. 이야기는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비실제적인 허구의 영역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나 역사적 사건으로 구성된 이야기와 같은 진실된 이야기들을 포함한다(Polkinghorn, 2009, 44, 54; Powell, 2012, 53). 이야기는 발화의 시점, 아이러니, 갈등, 구성을 비롯한 서사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수사 기법들을 사용한다(Wright, 2010, 80).

이야기는 정확히 어떤 시간에 무엇이 발생했는지 보고하기 위해 쓴 단순한 사실 기록이나 ‘연대기’와는 다르다. 이야기는 사실보다는 의미에 관한 것으로서(MacAdams, 2020, 36),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은 일련의 사건 개요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특정한 서사적 맥락에 입각하여 사건을 배열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시간 경험과 개인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인간 경험을 재현하고 해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본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Tappan&Packer, 2022, 9).

McAdams(2020, 32-33)는 이야기의 공통된 2가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는 이야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반에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나름의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옛날 옛적 아주 먼 곳에”, “크리스마스 전날 밤, 모두 그 집을 통과할 때” 처럼, 시간과 장소를 말해주는 장치이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등장인물이 반드시 인간일 필요는 없지만, 동물이나 사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더라도 대부분 인간적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 사건 발생 전에 등장인물의 나이나 외모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등장한다.

이야기와 내러티브(Narrative)라는 용어는 종종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 내러티브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거나 반대로 이야기를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양금희, 2010a; 2010b; Groome, 2011). 사전적 의미에 따라 내러티브를 “일련의 사건이 가지는 서사성”으로 이해한다면,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로 기술되지 않은 영화나 만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의 표현양식이 포함된다. 그런 면에서 내러티브는 이야기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폴킹혼(Polkinghorne, 2009, 44-44)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이야

기 형식으로 표현된 일종의 조직적인 도식이며 이야기, 설화, 역사 등을 가리킨다. 이야기식 설교는 이야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야기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야기식 설교는 또한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된 일종의 조직적인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내러티브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의미상 이야기와 내러티브의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야기로서의 성경

이야기는 흔히 인식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추상적인 진리나 '실재'에 관한 순수한 진술 대신 예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해되거나 수사적인 말들을 위한 포장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예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야기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이야기는 세계관이라는 전체 구조물 내에서 핵심적이다. 세계관을 특징짓는 이야기들은 신념들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 속한다. 이야기들은 세계를 경험하는 데에 결정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또한 이야기들은 다른 세계관들에 도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를 통한 세계관 및 다양한 변형들에 관련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증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라는 양식을 통하여 과거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또한 현재 신실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인내하고 순종할 것을 종용하며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단번에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하라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그들의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필수적인 방식이었다. 주 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세계를 바라보는 다른 방식들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선택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계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전하였던 것이다(Wright, 2010, 77-87).

한스 프라이(Frei)는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큰 집적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전창희, 2010, 190-191). 그동안 성경은 이야기라는 문학작 이해에서 읽히기보다는 의미 있는 역사기록이나 계시된 진리, 신앙을 위한 지침서로 읽혀 왔다. 성경연구의 분야에서도 지난 1세기 동안 역사비평이 주를 이루었다. 이 방법은 성경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삶과 사상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역사비평은 이야기 자체보다는 이야기 배후에 있는 역사적인 정황을 해석해 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역사비평은 본문의 의미를 본문의 기원과 발전 과정의 측면에서 기술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복음서의 서사적인 성격을 신중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Frei, 1996). 복음서는 예수의 이야기이지, 예수에 관

한 잡다한 자료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읽히도록 의도되었지, 각 구절의 상대적인 가치를 밝혀내기 위해서 분해하고 검증하도록 된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서를 연구함에 있어 보다 문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작되었고 성서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읽으려는 시도가 문학비평이다(박종석, 1996).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들은 그들의 존재와 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Wright, 2010, 616). 성경 기자들은 실재를 서사적으로 묘사하는 데 적절한 표현양식으로서 이야기 형식을 필연적으로 택하게 되었다고 보게 된 것이다. 문학작품에서는 실제 저자의 역사적인 의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자가 이야기 안에서 저자로 재구성해 낸 인물인 '내재된 저자'가 더 중요하다. 내재된 저자를 규명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어떤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할지를 밝혀내려는 것이다. 내재된 저자의 관점은 그 이야기의 외부적인 요소들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아도 밝혀낼 수 있다. 이야기의 역사적인 저자가 아니라 내재된 저자에게 해석의 초점이 맞춰질 때, 그 이야기는 스스로 말하도록 허용된다. 해석의 열쇠는 작품의 배경에 대한 정보에 있지 않고 이야기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학비평은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서 본문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강조한다. 문학비평은 본문을 분해하지 않고, 그것을 묶어 주는 이음새를 찾아내어 현재 가지고 있는 본문을 그 완결된 형태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복음서는 통일성 있는 서사이야기로 간주되며 각 구절들은 그 이야기 전체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해석된다. 이야기의 세계는 그 역사성에 비추어서 평가되기 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박종석, 1996; Powell, 2012, 21-34).

III. 이야기식 설교

1. 이야기식 설교

이야기식 설교가 등장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설교학계를 중심으로 명제 중심의 전통적인 설교의 대안으로 '새로운 설교학'의 등장과 맞물린다. 이 새로운 설교학의 중심에 '이야기식 설교'가 있다(김창훈, 2004, 55). 이야기식 설교의 등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스 프라이를 필두로 한 '이야기 신학'의 발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스 프라이는 이야기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작업에 관심을 두었고, 성경 연구 방법에서 성경의 서사성이 상실되었음을 비판하였다. 찰스 캠벨은 프라이의 이야기 신학의 설교적 암시들을 이야기식 설교학으로 구체화시켰다(전창희, 2010, 177-183).

그렇다면 이야기식 설교란 무엇인가? 이야기식 설교는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었지만, 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야기식 설교는 이야기 줄거리로 이루어진 설교를 말한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야기 형식을 갖춘 설교를 이야기식 설교라고 한다(김창훈, 2004, 59). 로우리(Lowry, 2011, 24-31)는 특별히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곤경과 같은 주제가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플롯)와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식 설교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삶에서의 곤경 상황과 모순이 갖는 문제점에서 해결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처한 실존적 상황과 관련하여 게르하르트 에벨링은 복음적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황이 먼저 '질문'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폴 틸리히 역시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해 복음의 응답을 상호 연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Krych, 2012, 36-38). 로우리(2011, 35)는 이야기식 설교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서나 교리 내용 자체가 아니라 문제에서 해결로, 가려움에서 긁어 줌으로 옮겨가는 전이 과정이라고 본다.

로우리(2011, 40-105)는 이야기식 설교를 구성하기 위한 다섯 단계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설교의 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중들의 평형감각을 뒤집어 놓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인간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나 갈등 상황을 통해 문제의 모호함을 알려주고 청중들을 거기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긴장의 균형을 변경시켜 새로운 불균형을 산출해내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긴장을 설교의 결론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모순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왜 그런가?”를 물어보면서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모순으로 직접 뛰어 들어 들어가야 한다. 이 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복음의 궁극적인 선포 형태를 좌우한다. ‘왜 그런가’를 물어보는 분석은 설교할 복음의 내용에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설교 구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행동 뒤에 숨어있는 동기나 두려움, 결핍이나 필요를 엄밀하게 살펴보는 깊이 있는 분석이 요청된다. 분석의 목적은 문제가 발생하는 내적 동기를 파헤쳐서 어떤 치유책이 필요한지 배경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는 단계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과정들은 잃어버린 연결고리, 곧 문제화된 이유를 해결해주는 어떤 설명을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연결고리는 문제와 답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가려움에서 긁어줌으로 이어주는 다리이다. 일단 실마리가 드러나기만 하면 사건들은 다른 견지에서 보게 된다. 분석작업이 벽에 부딪힐 때,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되곤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논점을 납득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해결의 실마리는 뜻밖의 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거기에는 역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 네 번째는 복음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면, 문제의 상황은 복음을 경험하기에 충분하게 성숙된다. 사실상 선포되는 복음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신뢰할만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놓여진 상황에 의존한다. 인간이 처한 문제의 답은 인간 실존의 구조

를 넘어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빛과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다(Krych, 2012, 35). 마지막으로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이다. 복음과 인간의 상황이 교차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이 기대될 수 있으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 무엇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설교의 결말의 마지막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복음에 의해 야기시켜야 한다.

물론 이 다섯 단계를 다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화의 다양성이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결과를 기대하는 부분은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약간의 힌트만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첫 번째 단계인 평형을 뒤집는 단계도 불필요할 수 있다. 청중들이 설교를 들을 공감대를 전혀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하고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례 상황처럼, 설교 상황 자체가 죽음을 통하여 평형을 뒤집어 놓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Lowry, 2011). 청중의 관심과 설교가 놓인 자리를 잘 분석하여 Lowry의 이야기식 설교 구성을 위한 다섯 단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식 설교

어린이 예배에서 설교의 형태로서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과 복음을 소통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성경은 우선 어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는 어렵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낯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복음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는 갑자기 어떤 내적인 체험을 하거나 자연이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성경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아이들은 그 옛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곤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는지 귀 기울이게 된다(Schweitzer, 2012, 173-178).

이러한 의미에서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성경의 낯선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형태를 살펴봤을 때도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지평임을 이해할 수 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독백적인 설교는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설교인 산상설교는 성서 연구의 역사 비평적 견해에서는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특정한 기회에 단번에 설교하신 내용이라기보다는 복음서 저자에 의해 편집된 어록이라고 보는 것이다(Hagner, 1999, 202). 예수님은 긴 설교나 일반적인 진리를 선

포하기보다는 매번 그 상황에 맞게 짧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르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청중들과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소통의 방법과 주제를 개진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소통 방식을 살펴봤을 때, 아이들과 복음을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교의 형태는 일방적인 주입식 설교보다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설교가 아이들에게 더욱 적합하다. 이야기는 어떠한 원리나 원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줄거리 안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지만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양금희, 2010b, 183). 아이들은 생생하게 묘사된 구체적인 상황으로 인도될 때 추상적인 종교 개념들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이야기는 오감을 통해 파악되는 것처럼, 현실적인 실재들을 탐구할 때 사용하는 주된 수단이다. 이야기는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수용과 거절 사이의 긴장을 알아보고 탐구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워준다(Peterson, 2004, 55-56).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신앙과 삶에 대한 새로운 지평과 전망을 얻게 되고 이로써 복음을 위한 소통의 공간이 마련된다(Grethlein, 2014, 105-110).

그레트라인은(Grethlein, 2014, 112-113)은 어린이 예배에서의 이야기식 설교를 위한 구성을 범죄 소설에서 나타나는 긴장 고조의 도식을 따라 다섯 단계로 간략하게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을 이야기식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과 시간적 상황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영웅'을 소개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갈등이 첨예화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이 실패했거나 실패한 현장을 바라보는 행동의 지연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된다.

피스터(Theodor Pfister)는 이야기식 설교를 위한 기본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Dieterich, 1997, 46).

- 인물: 여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장소: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 시간: 언제 일어났는가?
-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핵심: 본문, 구절, 문장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피스터(Theodor Pfister)는 이야기의 핵심을 전하는 단계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야기식 설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성경 이야기를 확장하거나 변형시키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Dieterich, 1997, 143). 모든 이야기식 설교는 유연한 언어와 풍부한 미사어구에 의해 생명력을 얻는다. 단순히 ‘그는 배가 고파서 빠르게 먹었다’가 아니라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음식을 보자마자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와 같이 아이들에게는 풍부한 어휘의 묘사가 필요하다. 이야기식 설교에서는 가능한 간접 화법보다는 직접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식어의 사용은 정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가능한 모든 감각이 이야기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 좋은데, 바람, 온도, 냄새, 맛, 소리, 풍경 등에 대한 지시어들이 등장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 전달에서 감각을 잘 이용하는 것은 ‘효과’만을 노리는 방법이 아니라, 청중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이다(Grethlein, 2014, 112-113; Lowry, 2011, 120).

3.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식 설교의 주제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식 설교에 적합한 본문이나 주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천 년 이상의 큰 간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맞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는 설교자의 의도가 그렇지 않음에도, 자칫 아이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이들은 아브라함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의 위치인 이삭과 자신을 동일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두려움에 더 공감하게 될 것이다(민영진, 1991, 150).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이며 그 가운데서 어른이나 부모, 교사들의 권위와 힘 앞에 연약함이나 무력감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이삭에게서 느낀다면, 복음이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억압과 두려움의 산물로 잘못 심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을 어떠한 신학적 입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본문이나 주제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 역시 분명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에게는 다르게 들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설교자의 성찰과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포함한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설교자에게 요구된다.

Walter(1999, 103)는 책임 있는 이야기식 설교는 성경의 증언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세계에서 오늘날에 맞게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야기식 설교는 성경 역사에 대한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니다. 도덕을 설파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외현적 사태를 단순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신앙을 포함하여 삶을 잘 살아나가

는데 필요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Othmer-Haake, 2004, 109). Schweitzer(2012)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중대한 질문'을 직접 다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그가 '중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대하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종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삶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질문, 궁극적인 관심과 관련된 질문을 말한다. 그가 제시하는 아이들의 중대한 질문과 관련된 성경의 주제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식 설교를 위한 주제와 본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질문은 나 자신에 관한 질문으로서, 나는 누구지? 이 세상은 신뢰할만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와 같은 인간과 세상의 기원, 미래에 관한 질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들려줄 수 있는 성경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과 모세를 인도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등이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죽음에 관한 것이다. 죽음에 관한 질문은 모든 아이가 한 번쯤은 던지게 된다. 죽음에 관한 질문은 아이들에게 예외적인 질문이 아니라 삶 전체의 의미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질병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으로써 내가 맘 놓고 기뻐할 수 있는 곳은 어디지? 라는 물음이다. 이에 관해서는 성경의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 가치관과 도덕과 관련한 질문으로써 왜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행동의 근거에 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등을 들려줄 수 있다.

이야기식 설교의 주제를 위해 에릭 에릭슨의 발달심리학에 의거하여 시금석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생애에는 주기가 있고 전환점이 있는데, 생애에서의 이 전환점은 어떤 특정한 발달이 결정되는 시기를 뜻한다. 그리고 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발달과업이 성취되어야 한다. 발달은 두 개의 극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여덟 발달단계로 나뉘며 어린이 예배에 해당하는 발달단계는 네 개에 해당한다. 즉, 유아기는 '원초적 신뢰 대 불신'이라는 과업이 주어지는 단계이고 아동기 초기의 아이들에게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놀이기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주도성 대 죄책감'이라는 과업이 주어진다. 학령기의 취학 아동들은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는 과업의 단계이다. 이러한 발달단계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식 설교의 주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Dieterich, 1997, 60-61; Erikson, 2020; Schweitzer, 2009, 86-107).

Tschirch(1997, 24)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해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와 상징들, 아이들의 이해력과 관심들, 아이들의 삶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주제들을 제안

하고 있다. 성탄절에는 ‘어둠 가운데 빛’, 부활절에는 ‘죽음 안에서의 생명’, 두려움과 신뢰, 작은 것과 큰 것, 하나님의 창조와 나의 세상, 나와 다른 사람들, 희망과 평화 등이다.

IV. 이야기식 설교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어린이 예배의 이야기식 설교에서는 이야기가 말해진다. 제임스 스미스(Smith, 2018, 73-85)는 우리를 사로잡는 이야기, 우리가 뱃속까지 흡수한 이야기들은 무의식 차원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행동하게 한다고 말한다. 최근 연구는 인간의 행동과 결정은 의식의 영역보다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Brooks, 2012, 9), 이야기는 우리의 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어린이 예배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암묵적 이해를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식 설교에서 소통되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말을 건네고 무의식을 형성하여 앞으로의 신앙과 인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참여적 배움

이야기식 설교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 역시 그 나름의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Tschirch, 1997, 27). 이야기식 설교는 청자인 아이들에게 창조성을 요구하고 생각의 유희를 즐기게 하며 내적인 이미지를 일깨운다(Berryman, 2011, 122-123; Walter, 1999, 102). 이러한 과정은 수많은 장면이 빠르게 지나가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

텔레비전 역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 방식은 비유적이지 않다. 텔레비전의 의사전달 방식은 일방적이고 순응을 강요한다. 그러므로 저마다 독특한 아이들의 창조적 과정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텔레비전은 단순히 중립적인 유희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궁극적인 실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다양한 캐릭터와 이미지들을 통하여 세속적 세계관을 주입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해 나가도록 한다. 텔레비전은 우리를 살아 있는 주인공의 실재가 되기보다

흥미진진한 인간의 대리 모험을 수동적으로 즐기는 시청자가 되도록 강요한다. 제롬 베리만(Berryman)은 그러한 것은 살아 있는 순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길을 찾아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모험에 필요한 에너지를 잡아 먹는다고 말한다(Berryman, 2011, 124-131; Schweitzer, 2012, 72-73; Smith, 2019, 152).

반면에 이야기식 설교에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아'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Tappan&Packer(2022, 85-86)에 의하면 청자는 이야기 가운데 발화하는 '나'의 목소리와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자는 마치 자기 자신에 관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화자와 관계를 맺게 된다. 청자는 화자를 자신의 용어로 이해하고 화자의 이야기에 지적,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자와 타자의 마음이 서로 맞닥뜨리게 된다. 화자의 말이 청자의 정신세계로 들어왔을 때, 화자의 사고와 감정은 청자의 사고와 감정과 대응하여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화자는 청자에게 영향을 주고, 청자는 화자와 공유하는 세계, 특히 관계의 세계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일단 타인의 목소리가 청자의 정신에 들어오면, 청자는 더 이상 화자와 분리된, 또는 '객관적인'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청자는 화자의 말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거나 슬픔, 행복, 질투, 분노, 지루함, 좌절감, 안정감, 희망 등을 느끼게 된다. 이는 관계나 연결을 통해 자아의 내면을 타자에게 열어 내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식에 이르는 길을 창조해 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동일시'를 통한 '경험적 학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일시를 통해서 아이들은 낯선 상황과 새로운 삶,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배움의 길이 열리며 아이들의 삶이 확장된다. 이러한 배움은 논리적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참여를 통해 일어난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 세계 안으로 초대되고 그 사건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 이르고 결국 행동할 수 있게 된다(양금희, 2010a, 18-19). 이러한 과정은 우리 자신만의 순례 여행을 위해 광야로 들어가도록 초대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대면하고 가족, 이웃, 자연과 친밀한 접촉을 하도록 요청한다(Berryman, 2011, 130).

마가렛 크리취(2012, 44-46)는 복음 교육의 변수가 되는 요소는 '참여'의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그 가운데 실존적 참여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통된 실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의 '중대한 질문'을 다룬다. '중대한 질문'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질문들이다. 제롬 베리만(2011)은 그것을 존재론적 한계의 네 면이라고 표현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삶과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을 건드릴 필요가 있다. 설교자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소외나 불안,

죄책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삶 속에 참여하고 그것을 설교의 장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와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에 초대되고 참여하게 된다. 직접적인 분석이나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야기를 통하여 접근할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자신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을 설득하려 않지만,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물음과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식 설교는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지만 실존적 참여를 요구하고 자아와 정면으로 만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감정을 움직이는 참여적 배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교적 언어의 획득

Grethlein(2014, 111)은 이야기식 설교는 아이들의 종교적 ‘어휘’를 풍성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종교적 언어를 획득함으로써, 아이들은 삶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도움을 얻는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Rizzuto(2000, 85-95)는 아이들은 생애 초기에 궁극적인 것과 관련되어 생각할 수 있는 종교적인 차원을 이미 경험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보살핌과 필요를 공급받음으로써 어릴 때부터 아늑함과 보호에 대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원초적 신뢰가 형성되고 이는 아이의 원초적 신앙 형태를 이루게 된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러한 원초적 신앙 형태의 경험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언어를 통해 유아기에 경험했던 두려움이나 그리움을 의식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격 발달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를 제공 받지 못한다면, 원초적 신앙의 경험은 무의식 차원에 머물러 버리거나 대중 매체와 같은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들은 더 이상의 종교적 사회화 없이는 삶에 많은 정서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게 된다. 즉, 성인으로서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발달시키는 이미지의 핵심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김은주, 2021, 295; MacAdams, 2020, 80-83; Schweitzer, 2012, 58-59).

반면 이야기식 설교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원초적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 표현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만나게 된다. 제롬 베리만(2011, 12-13)은 종교언어의 임무는 ‘커다란 그림 한 폭’을 깊이 사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그림은 존재론적인 한계의 네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한 면은 죽음에 의해 한계 지어지는 경계선이다. 두 번째 면은 ‘의미 추구’로써 세계관을 한계 짓는다. 세 번째는 ‘자유의 위협’이

다. 그리고 네 번째 면은 '혼자'라는 한계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존재론적 한계들을 자각하고 있고 그러한 궁극적인 관심들을 자각하고 있는 생명체로서 자신들을 세워 줄 언어적 도구들을 필요로 한다. 종교언어는 하나님, 자아, 타인들, 그리고 창조 사이의 행동들의 순수한 조합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한다. 종교언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상상력의 과정을 행동들의 조합들과 연결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들을 명명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종교적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한 존재론적인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고, 후에 더 건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는 말

라이트(Wright, 2010, 82)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의 삶을 단 하루 동안만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당신은 그의 삶을 일생 동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열정적인 지향은 이야기에 의해 빚어진다고 분석한 제임스 스미스(2018)의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들린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해 가기 때문이다. 최근의 종교교육 논의에서 이야기는 시각적인 미디어와는 반대로 아이들만의 고유한 판타지를 자극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댄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어린이 예배에서 행해지는 이야기식 설교 또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어린이 예배에서 행해지고 있는 설교가 보다 더 이야기식 설교에 초점이 맞추어지길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다루었다. 이야기식 설교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좀 더 참여적 배움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과 자아와 타자에 대한 종교적 언어를 획득함으로써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은주 (2021).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인격발달을 위한 예전으로서의 어린이예배의 의미. **기독교교육논총**, 68, 279-306.
- [Kim, E. J. (2021). The meaning of children's worship as a liturgy for personality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modern socie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8, 279-306.]
- 김창훈 (2004). 이야기식 설교(Narrative Preaching)의 이해. **상담과 선교**, 45, 55-70.
- [Kim, C. H. (2004). Understanding Narrative Preaching. *Counseling and Mission*, 45, 55-70.]
- 민영진 (1991).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희망**. 서울: 삼민사.
- [Min, Y. J. (1991). *God's Joy, Man's Hope*. Seoul: Samminsa.]
- 박종석 (1996). 이야기와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1, 77-96.
- [Park, J. S. (1996). Stories and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 77-96.]
- 방진하 (2014). 맥킨타이어 '서사적 자아'(narrative self)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철학 연구**, 36, 71-99.
- [Bhang, J. H. (2014). A study on the concept of "narrative self"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6, 71-99.]
- 양금희 (2010). **이야기-예술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Yang, K. H. (2010). *Story-art-christian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양금희 (2010). 이야기의 기독교교육적 차원. **기독교교육논총**, 23, 181-211.
- [Yang, K. H. (2010). A study about story and its religious educational dimens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3, 181-211.]
- 전창희 (2010). 한스 프라이의 '이야기 신학'과 '이야기 설교학'의 발전에 관한 연구. **신학과실천**, 24, 177-208.
- [Jeon, C. H. (2010). A Study of Hans Frei's Narrative Theology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rrative Homiletics. *Theology and praxis*, 24, 177-208.]
- Berryman, J. W. (2011). **가들리 플레이**. 양금희·김은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91 출판)
- [Berryman, J. W. (2011). *Godly play*. Translator: Yang, K. H.·Kim, E. J. Seoul: Publishing House of the PCL.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1)]
- Brooks, D. (2012). **소셜 애니멀**. 이경식 역. 서울: 흐름출판. (원저 2011 출판)
- [Brooks, D. (2012). *The social animal*. Translator: Lee, G. S. Seoul: Next Wave Publishing.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1)]
- Dieterich, E. (1997). *Erzähl doch wieder!. ein lese- und arbeitsbuch zum erzählen biblischer geschichten*, Stuttgart.
- Erikson, E. Erikson, J. (2020). **인생의 아홉 단계**. 송제훈 역. 서울: 교양인. (원저 1997 출판)
- [Erikson, E. Erikson, J. (2020). *The life cycle completed*. Translator: Song, J. H. Seoul: Gyoyangin.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7)]
- Frei, H. W. (1996). **성경의 서사성 상실**. 이종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Frei, H. W. (1996). *The elipse of biblical narrative*. Translator: Lee, J. L. Seoul: Publishing House of the PCL.]
- Grethlein, C. (2014). **교회학의 아이들**. 김상구·김은주 역. 서울: CLC. (원저 2010 출판)
- [Grethlein, C. (2014). *Kinder in der kirche*. Translator: Kim, S. G.·Kim, E. J. Seoul: CLC.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0)]
- Groome, T. (2011).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3 출판)
- [Groome, T. (2011).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Translator: Lee, K. M. Seoul: Publishing House of the PCL.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3)]

- Hagner, D. A. (1999). **WBC 성경주석. 마태복음 상**.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원저 1998 출판)
- [Hagner, D. A. (1999). *Word Biblical Commentary. Matthew 1-13*. Translator: Chae, C. S. Seoul: Solomon.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8)]
- Krych, M. A. (2012).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교육**. 이규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7 출판)
- [Krych, M. A. (2012). *Teaching the gospel today*. Translator: Lee, K. M. Seoul: publishing House of the PCL.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7)]
- Lowry, E. (2011). **이야기식 설교 구성**.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Lowry, E. (2011).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Translator: Lee, Y. G. Seoul: Publishing House of the PCL.]
- McAdams, D. P. (2020). **이야기 심리학**. 양유성·이우금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3 출판)
- [McAdams, D. P. (2020). *The stories we live by: Personal myths and the making of the self*. Translator: Yang, Y. S·Lee, W. G. Seoul: Hakjis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3)]
- MacIntyre, A. (1997). **덕의 상실**. 이진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저 1984 출판)
- [MacIntyre, A. (1997). *After virtue*. Translator: Lee, J. W. Seoul: Moonye Publishing Co.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4)]
- Othmer-Haake, K. (2004). *Lernen von kindern- kindergottesdienst als avantgarde des gottesdienstes*, in: Urban, C./ Rieg, T.(Hg.), *Das vergessenen Jahrzehnt*, Bochum.
- Peterson, E. H. (2004).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김종태 역, 서울: IVP. (원저 1997 출판)
- [Peterson, E. H. (2004). *Leap over a wall: earthy spirituality for everyday Christians*. Translator: Kim, S. T. Seoul: IVP.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7)]
- Polkinghorne, D. E. (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강현석·이영효·최인자·김소희·홍은숙·강웅경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88 출판)
- [Polkinghorne, D. E. (2009).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Translator: Kang, H. S·Lee, Y. H·Choi, I. J·Kim, S. H·Hong, E. S·Kang, Y. G. Seoul: Hakjis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8)]
- Powell, M. A. (2012). **서사 비평이란 무엇인가?** 이종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90 출판)
- [Powell, M. A. (2012). *What is narrative criticism?* Translator: Lee, J. L. Seoul: Publishing House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0)]
- Rizzuto, A.-M. (2000). **살아 있는 신의 탄생**. 이재훈 외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저 1979 출판)
- [Rizzuto, A.-M. (2000). *The birth of the living God*. Translator: Lee, J. H. et al. Seoul: The Korea psychotherapy Institute.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79)]
- Schweitzer, F. (2012). **어린이의 다섯 가지 중대한 질문**. 손성현 역. 서울: 산티. (원저 2000 출판)
- [Schweitzer, F. (2012). *Das recht des Kindes auf religion*. Translator: Son, S. H. Seoul: Shanti Book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0)]
- Schweitzer, F. (2009). **삶의 이야기와 종교**. 송순재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원저 1999 출판)
- [Schweitzer, F. (2009). *Lebensgeschichte und religion: religiöse entwicklung unterziehung im Kindes- und jugenda lter*. Translator: Song, S. J. Seoul: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9)]
- Smith, J. K. A. (2018).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박세혁 역. 서울: IVP. (원저 2013 출판)
- [Smith, J. K. A. (2018). *Imagining the kingdom*. Translator: Park, S. H. Seoul: IVP.(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3)]
- Tappan, M. B. & Packer, M. J. (2022).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이재호 역, 서울: 박영스토리. (원저: 1991 출판)
- [Tappan, M. B. & Packer, M. J. (2022). *Narrative and storytelling*. Translator: Lee, J. H. Seoul: Pybook.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1)]

Tschirch, R. (1997). *Biblische geschichten erzählen*, Stuttgart.

Walter, U. (1999). *Kinder erleben kirche. werkbuch kindergottesdienst*. Gütersloh.

Wright, N. T. (2010).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저 1992 출판)

[Wright, N. T. (2010).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Translator: Park, M. J. Goyang: Christan Digest.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2)]